

THE 25TH DANWON ART FESTIVAL SELECTED ARTIST EXHIBITION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여기 ∞ 마주하다  
HERE, ENCOUNTER

여기 ∞ 마주하다  
HERE, ENCOUNTER

김홍도미술관 1관

2024.10.1.TUE - 11.10.SUN

# 목차

06	인사말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07	축사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08	인사말 구자승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10	전시서문
12	평론 고충환 미술평론가
16	단원미술대상 성필하
28	선정작가 강승혜 김범준 김정옥 노은영 신예진 안종우 주형준 최은정 최혜연 한소희
130	작가약력
140	심사결과 및 위원명단
148	발행정보



**인사말**  
**이민근**  
**안산시장 ·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꿈꾸는 안산시장 이민근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10월에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여기∞마주하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시를 가꿔주시는 안산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단원미술제 운영을 맡아주신 구자승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미술제는 조선시대 천재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정신과 예술혼을 계승한 안산시의 대표적인 전시행사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시류 속에서 시민과 관객들이 더 가까워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여기∞마주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국내 총 407인의 작가 중 선정된 11인의 작가들과 함께한 자리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엿보고, 그들의 창작 영역을 마주하며 안산의 문화예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을 통해 예술의 가치와 영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5회 단원미술제에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입니다.  
청량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여기∞마주하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창의적 열정과 탁월한 예술적 감각으로 작품을 선보여주신 열한분의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단원미술제와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안산문화재단 이성운 대표이사님과 김홍도미술관 하진용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시작된 단원미술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의 예술적 유산이 우리 곁에서 숨 쉬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도 선생의 화풍처럼,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신 여러분의 작품도 현대의 삶 속에서 색다른 감각과 이야기를 담아내어 우리 모두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전시회에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작품들 속에서 아름다움의 깊이를 음미하고, 그 속에 담긴 감동과 여운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전하는 섬세한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합니다.

열한 분의 작가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안산을 넘어 한국 미술계에 큰 획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구자승**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25회 단원미술제를 맞이하며

가을빛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제25회 단원미술제를 맞이하며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그간 단원미술제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이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 미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인들에게도 명예로운 국내 유일한 공모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은 물론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 속에 해를 거듭하며 큰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오늘날 한류의 물결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미술 분야가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인재 발굴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단원미술제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선발된 작가를 계속 지원하고 이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정된 작가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해 단원미술제를 위해 많은 성원과 힘써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 이민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 《여기∞마주하다》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된 미술 공모전으로 2015년부터는 미술부문을 작품공모에서 작가공모로 전환하여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후속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는 총 407인의 작가가 지원하였고 평론가, 작가, 교수, 미술감독, 미술 잡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 전문가들이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강승혜, 김범준, 김정옥, 노은영, 성필하, 신예진, 안중우, 주형준, 최은정, 최혜연, 한소희 11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작업의 주제와 매체로 이뤄진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공모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이자 《여기∞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묶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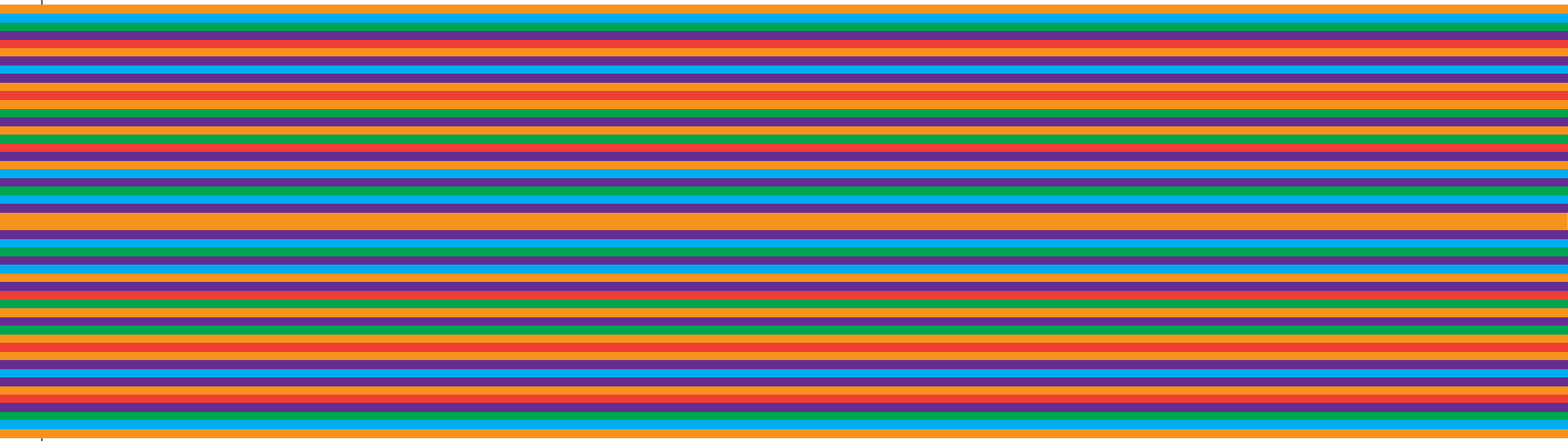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작가 등용문인 살롱전(Le Salon)이 있었다. 루이 14세 시기의 화려한 궁정에서 시작된 살롱전은 1648년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1667년 아카데미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며 시작되었다. 제한된 대중에게만 개방되었던 초기의 살롱전은 이후 응모작 모두를 전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는 새로운 맥락의 행사를 선보였고, 갖가지 이슈를 동반하며 이후 세계 미술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살롱전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세계 전역으로 퍼져 오늘날 또 다른 성격의 살롱전들이 다양한 형태의 미술 이벤트로 열리고 있다.

1999년 시작된 단원미술제 역시 관 주도의 미술 공모전으로서 안산을 단원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작가를 배출해 왔다. 특히, 단원미술제는 역사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국내를 대표하는 미술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느덧 25회를 맞은 올해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에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움직임을 담았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여기’와 수학적 기호 ‘∞’는 단원미술제를 바탕으로 세워진 김홍도미술관의 모태에 주목하며 이 장소에서 펼쳐지는 작가들의 무한한 예술적 영역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작가 저마다의 치열한 노력과 고민을 담아낸 이번 전시 작품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참신한 새로운 시도와 해석으로 확장성이 돋보인다. 이는 이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단원미술제 모습을 가늠케 한다.

#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 고충환 미술평론가



단원 김홍도는 조선 시대 풍속화의 전형을 정립한 화가다. 국내 최초의 현실주의 화가였던 셈이다. 이런 화가의 현실주의 정신을 기려 1999년 시작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이 올해로 제25회를 맞았다. 올해 선정작가 공모에는 총 407인의 작가가 공모하였고, 그중 두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총 11인의 작가가 선정되었다. 선정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 기간 중 실물 심사를 통해 대상 작가 1명을 최종 선정하는데, 총 3회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된다. 회를 거듭할수록 신진작가 발굴보다는 선정작가들이 향후 한국현대미술을 이끌 중견작가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올해 전시 주제는 <여기, 무한대를 마주하다>로 정했다. 향후 작가들이 열게 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주목하는 한편, 예술에 관한 한 사전에 정해진 형식도, 틀도, 규칙도 없다는 무한 자유 정신을 의미할 것이다. 형식을, 틀을, 규칙을 깨는 형식실험장이 되겠다는 주최 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대상을 수상한 성필하 작가의 그림은 마른, 그 이면에서 재생을 예비하고 있는 이름 모를 잡초와 풀 더미를 보여준다. 풀 더미 속이나 언저리에 숨은 듯 작은 물웅덩이가 손에 잡힐 듯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죽은 듯 마른, 마구 영킨 잡초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일 것이다. 지리상으로 도시에도 자연에도 속하지 않는, 도시의 변방과 자연의 언저리, 도시와 자연이 물려 있는, 경계 위의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스치는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시간이 흐르지만, 흐르는 시간이 실감 되지 않는 정적인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작가는 멈춘 듯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저마다의 이름이 무색한 익명의, 무명의 와중에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와중에서도 저 홀로 피고 지는 생사 순환을 보여주는, 존재가 그런 것처럼 치열한, 쓸쓸한, 이름도 없는 것들을 그려놓고 있었다.

노은영은 숲을 그린다. 그 숲에는 그림자 사람들이 산다. 그림자 소리가 산다. 그림자 사람들은 그림자답게 철쭉 같은 밤에 더 잘 보인다. 그림자 소리는 그림자답게 사위가 고요할 때 더 잘 들린다. 그렇게 적막한 숲속에 서면 그림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스러지는 사람들이 스러지면서 내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일어서면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소리 또한 어떤가. 풍경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리다. 풍경이 품고 있는 역사다. 시간이다. 풍경의 상처라고 해도 좋다. 그렇게 작가는 빼곡한 돌 더미에서, 숲속에서, 나무 덩굴에서 사람 형상의 실루엣을 본다. 사람의 그림자를 본다. 사람을 본다. 우연한 자연에서 사회적 징후를 보고, 사건을 보고, 감정을 본다. 그렇게 작가는 암시적인 숲, 은유적인 숲을 그려놓고 있었다.

최혜연은 우연의 숲을 산책한다. 원초적인 숲이고, 원형적인 숲이라고 해도 좋다. 무의식적인 숲이고, 기억으로 소환된 숲, 기억 저편의 숲이라고 해도 좋다. 칼 융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는 아득한 기억을 집단무의식이라고 했고, 그 집단무의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징 그러므로 반복 상징을 원형이라고 했고, 원형적 이미지라고 불렀다.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자연 자체, 존재 자체, 생 자체가 오롯해지는 날 것들의 이미지,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라고 해야 할까. 동물과 식물이 경계를 허물고, 의식과 무의식이 몸을 섞는, 규정된 것들이 개념으로부터 풀려나와 재설정되는 원형적인 극장이라고 해야 할까. 때로 악몽이 설핏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는, 꿈의 극장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작가는 우연한 숲을 빌려 사실은 우연한 자기를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을 빌려 존재의 원형적인 이미지를 채집하고 있었다.

신예진은 자연재생기구를 조형한다. 자연재생기구? 죽은 자연을 재생하는 기구? 여기에 죽은 나무가 있다. 그리고 스틸 파이프와 와이어, 내연기관 디젤 엔진과 부속과 같은, 한 눈에도 폐기된 공산품이 있다. 죽은 나무와 폐기된 그러므로 죽은 공산품을 하나로 조립해 죽은 나무 그러므로 죽은 자연을 재생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작가는 실행하고 있다. 죽은 것으로 또 다른 죽은 것을 재생한다는 점에서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그 실험이 생태 담론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읽힌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정된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 담론의 핵심이다. 인간의 이해관계 밖에서 재설정되는 관계는 당연히 열린 관계일 수밖에 없고, 현재 이런저런 관계들이 형식실험 중이고, 작가의 프로젝트는 그 형식실험의 한 경우를 예시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김범준은 빛을 어둠 속 밝은 그림자라고 했다. 어둠이 품고 있는 그림자? 어둠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림자? 빛의 기미를 빌려 겨우 자기를 내보이는 어둠의 실체? 작가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보고 싶고, 그 실체가 보고 싶다. 빛이 아닌, 어둠이 보고 싶다. 빛을 빌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어둠에 겹쳐 보이는 무언가가 보고 싶다. 그게 뭔가. 기억 저편에서 건져 올린 희미한, 흐릿한, 애매하고 불분명한 채로 현재 위로 소환된 것일 것이다. 미니카와 캐릭터 같은, 상실된 유년으로부터 호출된 것일 것이다. 창문을 두드리는 나무 그림자에 겹쳐 보이는, 회상 같고 회한 같은 무엇일 것이다. 발터 벤야민은 원래 먼 것인데, 마치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아우라 그러므로 분위기라고 불렀다. 그렇게 먼, 무언가일 것이다. 그렇게 작가는 먼 것을 호출하기 위해, 먼 것 그러므로 어둠에 겹쳐 보이는 것을 소환하기 위해 희미한, 흐릿한 빛의 기미를 들여놓았다.

안중우는 사진이 처음 발명되던 당시, 회화적 분위기가 강한 사진 작업을 예시해준다. 카메라 루시다, 밝은 방, 빛이 그림을 그리는 방, 그러므로 빛이 그린 그림으로 정의되던 시절의 사진의 질감을 소환하고, 전자매체 이전 화학실험실을 방불케 하던 시절의 색감을 호출한다. 기억처럼 빛바래고 색바랜 질감의 이미지가 서정적 환기와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새로운 모든 것이 빠르게

시간 속으로 흡수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전이되는 것, 그것이 사물의 운명이라는 발터 벤야민의 전언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사진은 첨단이었다. 이런 첨단은 미디어로 사물의 운명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 그러므로 사진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그렇게 작가는 빛과의 화학작용에 의해 하나의 이미지가 생산되던 시절, 화학실험을 매개로 사물의, 어쩌면 존재의 운명을 환기하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기억을 소환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작가가 소환하는 기억은 특히 공간적이다. 특정 공간과 관련한 기억을 소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공간이 기억을 소환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도 좋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에는 공간 그러므로 특정 장소의 우편번호가 제목으로 매겨져 있어서, 그 자체 장소 특정성이 강한 작업이라고 해도 좋다. 공간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지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기억의 지도라고는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만의 인식지도 그리기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기억 지도든 인식지도(아니면 지각지도)든 처음에 지도에는 집과 담벼락 그리고 길과 같은, 알만한 모티브가 등록돼 있었지만, 기억이 그런 것처럼 점차 모호해지고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추상적인 기억을 소환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인데, 그렇게 소환된 기억 지도가 저마다의 기억을 대입해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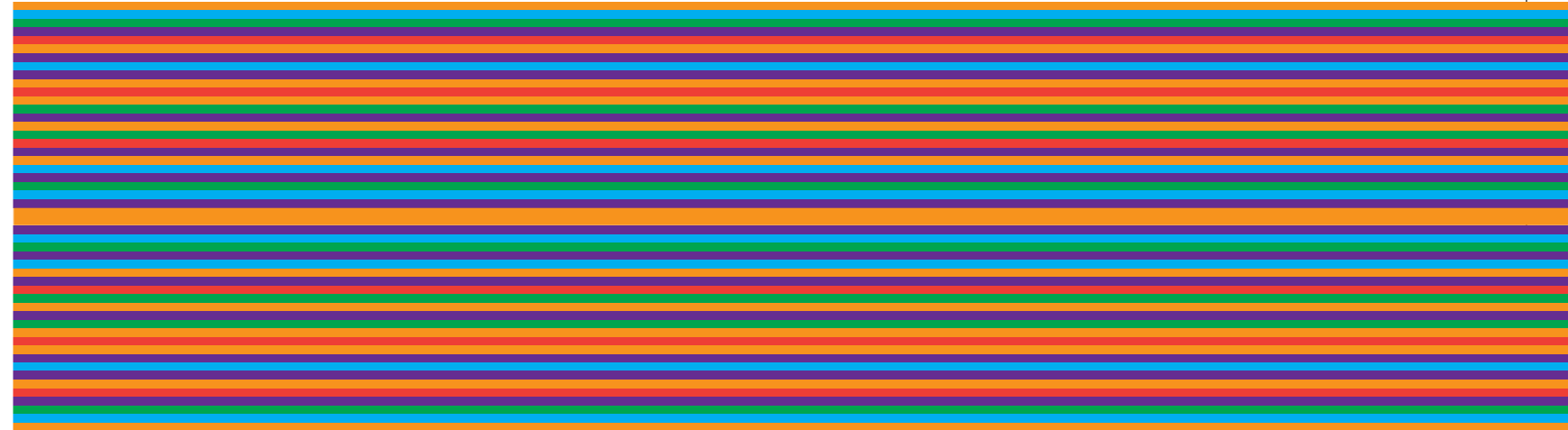
김정옥은 수족관 속 물고기를 보여준다. 수족관 속 물고기에 빔대어 인간군상을, 현대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일종의 알레고리를 그려놓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 수족관 속 물고기는 빼곡하다. 불편하다. 부당하다. 물고기는 원래 바다에 산다. 그리고 지금은 수족관에 산다. 산다기보다는, 갇힌 삶을 산다. 바다의 표면적과 수족관의 표면적의 차이만큼 빼곡한, 불편한, 부당한, 갇힌 삶을 산다. 현대인의 삶 역시 자유의지와 자의식의 표면적과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틀의 표면적이 갖는 차이만큼 빼곡한, 불편한, 부당한, 갇힌 삶을 산다. 이처럼 불편 부당한 삶의 알레고리를 작가는 <미끄러운 문장들>이라고 부른다. 미끄러지는 문장이라고 해도 좋다. 소외와 불통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다. 내가 하는 말은 끝내 너에게 가닿지 못한다. 생각이라는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 허끝에 맴돌 뿐. 끝내 발화되지 못한 채 입속에 삼켜질 뿐. 그렇게 미끄러지는 물고기들이 미끄러지는 말들을 상기시킨다.

최은정은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도래할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는 식물들의 기념비를 그린다. 기후 위기와 자연의 재설정을 테마로 한 것이란 점에서 생태 담론에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그림은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것인 만큼 장엄하고, 식물들의 세계답게 화려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식물들이 그로테스크하다. 미래에는 화려한 몸짓으로 자기주장이 뚜렷한, 그러므로 자기 변신에 성공한 식물들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일까. 그 실체가 손에 잡힐 듯 사실적인, 열대우림을 떠올리게 만드는 식물들, 유기적인 화면과 충돌하거나 조화(부조화를 통한 조화?)하는 기하학적인 구조와 패턴들, 그리고 여기에 조화와 수석 같은 식물 오브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화면이 회화를 넘어 설치회화를 예시해준다. 우연하고 무분별한 것들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조합이 탈경계 이후 회화의 한 가능성을, 브리콜라주와 브리콜레르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부분도 있다.

강승혜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아이의 여정을 그렸다. 일종의 성장 서사, 그러므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그리고 여기에 존재론적인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림 속에 아이가 쪼그려 앉아있다. 그리고 그 위로 앵무새들이 아이를 내려본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앵무새들이 아이에게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너무 많은 조언>을 하는 것인데, 나는 곧 타자다, 라는 랭보의 전언을 떠올리게 하고, 주체란 타자들의 우연하고 무분별한 집합이라는 후기구조주의의 주체를

떠올리게도 된다. 그렇게 아이는 타자들로부터 송출된 너무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성장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림 속에는 앵무새와 함께 비둘기와 이름 모를 새들이 등장한다. 나를 만드는, 나의 인격을 형성시켜줄 타자들이다. 새들을 타자에 빚댄 것이란 점에서 메타포가, 아이가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서사로 함축한 것이란 점에서 알레고리가 전용되고 있는 점도, 이를 통해 서사를 확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볼 일이다.

주형준은 소원 서사를 그린다. 아마도 소원을 성취해줄 마법의 반지가, 신성한 성배가, 먹구름을 찢는 장엄한 빛의 형상과 함께 내달리는 말이 소원의 상징적 도상으로 등장한다. 신화적이고 만화적인 느낌이 경계를 허물어 하나로 합치되면서 독특한 비전을 열어놓고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도 신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만화가 없지 않고, 이로부터 자기만의 회화를 추상해낸 작가들도 있는 터여서 작가의 그림이 설득력이 있고, 이로써 작가만의 또 다른 회화적, 서사적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신화는 이야기들의 이야기, 이야기들이 유래한 이야기, 이야기들의 원천, 원형적 이야기들의 보고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작가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와 웹툰을 아우르는 서사적 장르가 보편화된 시대정신과 세대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이로써 회화를 확장하고 심화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일이다.



미술계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고 창조적으로  
 승화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된 미술 공모전으로 2015년부터는 미술부문을  
 공모전에서 작가공모로 전환하여 해마다 영앙 있는 작품을 출품하고  
 영앙 후속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는 총 41인의 작가가 지원하였고  
 작가, 교수, 미술감독, 미술잡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  
 전문가들이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강승혜, 김범준, 김정목, 노은영, 송필하, 신예진, 안종우, 주현준  
 최혜연, 한소희 11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직업의 주제와 매체로 이루어진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공모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자 『여기 ∞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묶어 선보인다.

한스 파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작가 공동체인  
 살롱(Le Salon)이 있었다. 루이 14세 시기의 화려한 궁정에서 시작된  
 17세기 말엽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1667년 아카데미  
 제정된 다음 해에는 제정된 다음 해에는 제정된 다음 해에는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강승혜, 김범준, 김정목, 노은영, 송필하, 신예진, 안종우, 주현준  
 최혜연, 한소희 11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직업의 주제와 매체로 이루어진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공모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자 『여기 ∞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묶어 선보인다.

한스 파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작가 공동체인  
 살롱(Le Salon)이 있었다. 루이 14세 시기의 화려한 궁정에서 시작된  
 17세기 말엽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1667년 아카데미  
 제정된 다음 해에는 제정된 다음 해에는 제정된 다음 해에는

# 여기 ∞ 마주하다 HERE, ENCOUNTER

# 여기 ∞ 마주하다 HERE, ENCOUNTER

THE 25TH DONGWON ART FESTIVAL 2024  
 2024 동원미술제 선정작가

안종우  
 AN JONGWOO

주현준  
 JU HYUNJUN

최은정  
 CHOI EUNJEONG

최혜연  
 CHOI HYEYEON

한소희  
 HAN SO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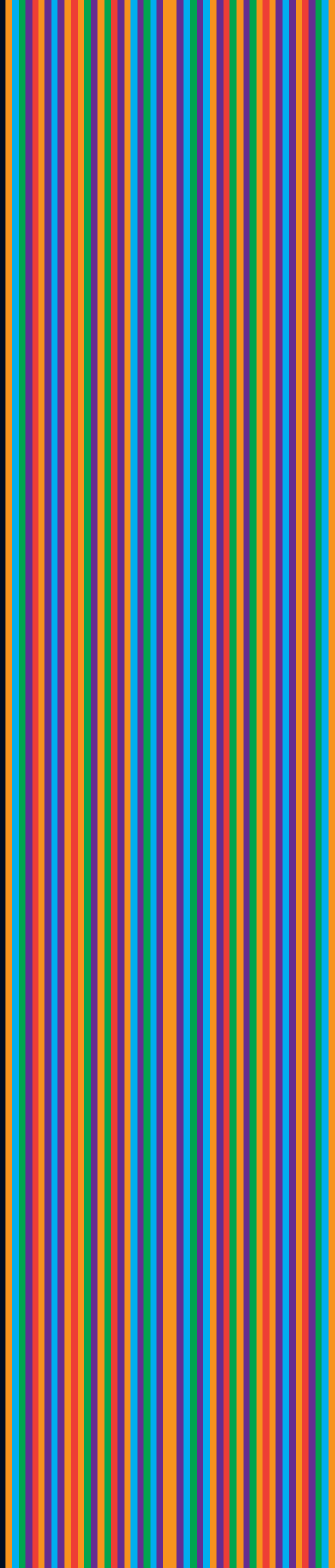
김봉도미술관 1관  
 2024.10.1 TUE - 11.10

#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 단원미술대상

#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 단원미술대상



## 성필하 SEONG PILHA

성필하는 자연의 시간을 통해 현재를 감지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작업에 등장하는 자연물의 이미지는 대부분 도심의 외곽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계절성을 상실한 변두리 공간으로, 마치 인간세계의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을 지닌다. 작가가 포착한 공간들은 이처럼 온전히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시간이 누적된 불규칙한 생태계의 특징을 가진다. 작가는 이처럼 순환의 세계가 발현하는 이미지를 탐색하며, 일상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춘분(春分)  
캔버스에 아크릴릭\_91x116.8cm\_2024



곡우(穀雨)  
캔버스에 아크릴릭\_41x53cm\_2024



수몰된 풍경1  
캔버스에 아크릴릭\_72.7x90.9cm\_2023



수몰된 풍경2  
캔버스에 아크릴릭\_130.3x162.2cm\_2023



정지된 흐름  
캔버스에 아크릴릭\_72.7x90.9cm\_2023



1. 1997



2. 1998



3. 1999

SEONG PILHA

SEONG PILHA (1963 - ) is a Korean painter who has been active since the 1980s. He is known for his abstract and semi-abstract works, often featuring dark, organic shapes and textures. His art is deeply influenced by traditional Korean ink painting (hanja) and the natural world. 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and is represented by several galleries.





1. 19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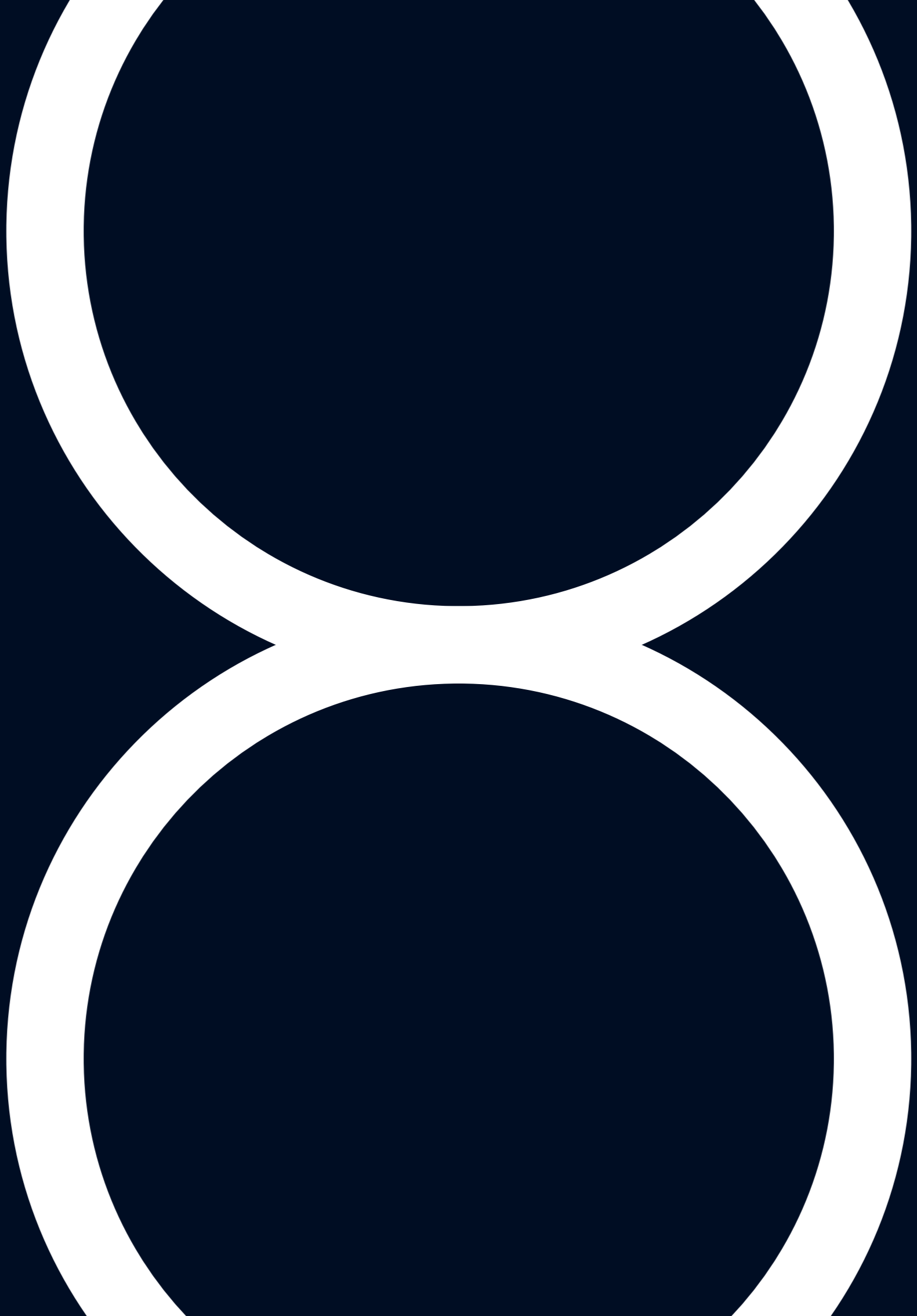


3. 19



4. 19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선정작가**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선정작가**

강승혜는 삶에서 대상과 현상을 인지하고 수용해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아이의 여정을 그린다. 작품 속 동물의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이자 경이로운 비일상의 존재, 상상의 존재이며 하나의 현상, 사건, 대상이 되어 다양한 세계의 현현이 된다. 아이는 그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성찰과 공존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며,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감각하는 인간의 대표이자 작가의 페르소나로 존재한다.



너무 많은 조언  
합판 위에 혼합재료\_122x122cm\_2023



토끼는 어디로 갔을까  
합판 위에 혼합재료\_112x122cm\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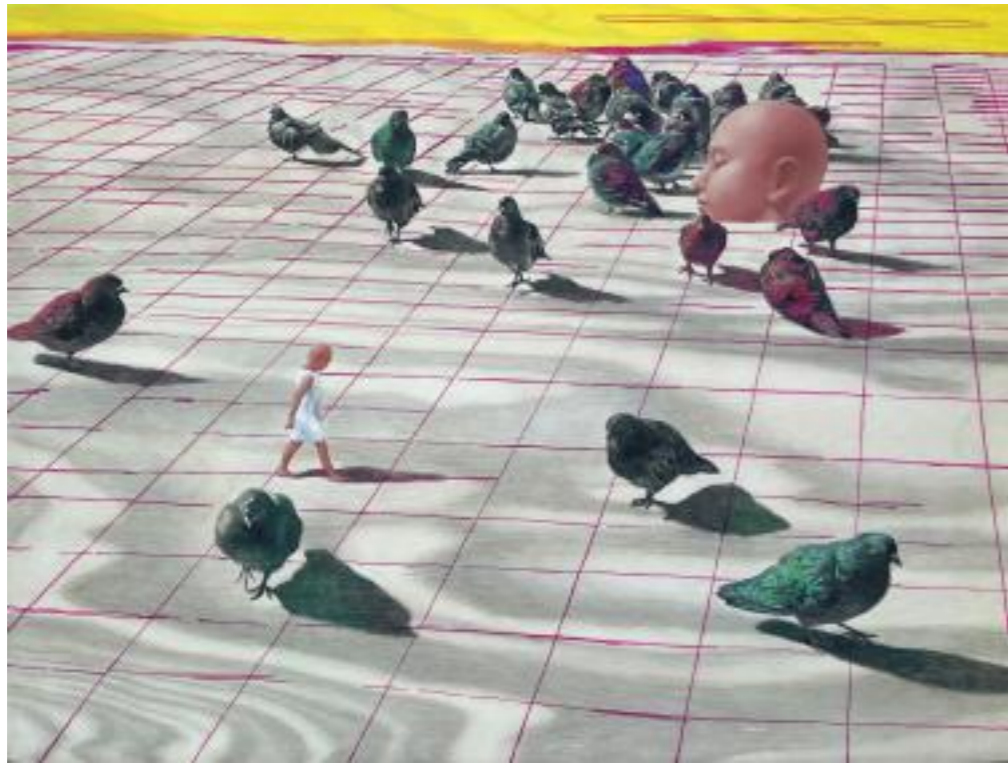
여름 날 오후  
합판 위에 혼합재료\_103x145cm\_2022



어흥!  
합판 위에 목탄과 아크릴\_122x194cm\_2022



심장이 터져버린 작은 새들을 위한 애도  
합판 위에 혼합재료\_122x110cm\_2023



광장  
합판 위에 혼합재료\_60x80cm\_2024



길을 알려주는 새  
합판 위에 혼합재료\_65x41.7cm\_2022



심호도尋狐圖  
합판 위에 혼합재료\_122x122cm\_2024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강승혜 KANG SEUNGHYE

본인은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 전공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김범준의 작업은 어둠 속 고요히 빛나는 카세트 플레이어 불빛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빛을 “어둠 속 밝은 그림자”라 표현하며, 전통적 의미의 판화 기법에서 나아가 LED 패널을 활용해 작업에 빛의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LED 패널과 이미지 필름, 판화지, 유리가 켜켜이 중첩되어 펼쳐지는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에서 관람자는 작가의 의도를 어렵פות이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작가는 흐릿하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의 저편에 있는 무엇, 혹은 알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관람자의 마음속에 드리운다.



What a wonderful day  
Film on LED light panel\_55x120cm\_2024



Beyond the veil  
Film on LED light panel\_80x110cm\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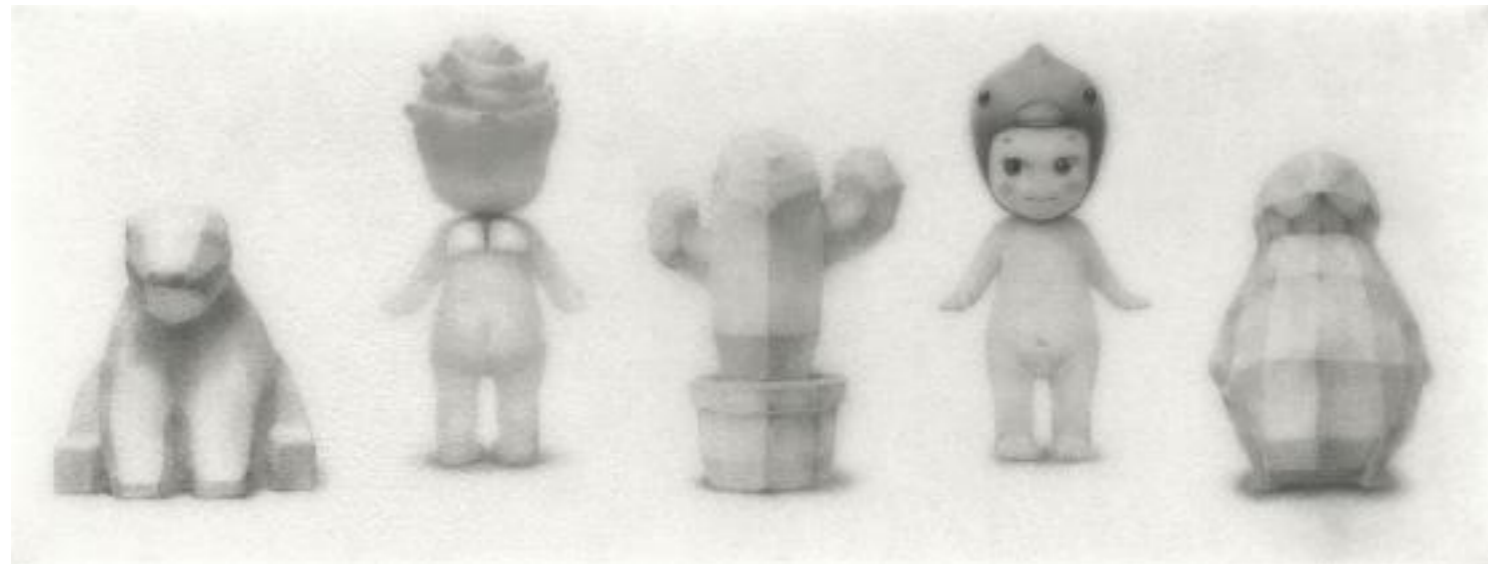
The burning bush No.1~6  
Film on LED light panel\_31x79cm(each)\_2023



Lives  
Film on LED light panel\_71x100cm\_2023



Leveret  
Film on LED light panel\_100x71cm\_2024



Times  
Film on LED light panel\_48x120cm\_2024



For Corinthians  
Film on LED light panel\_65x99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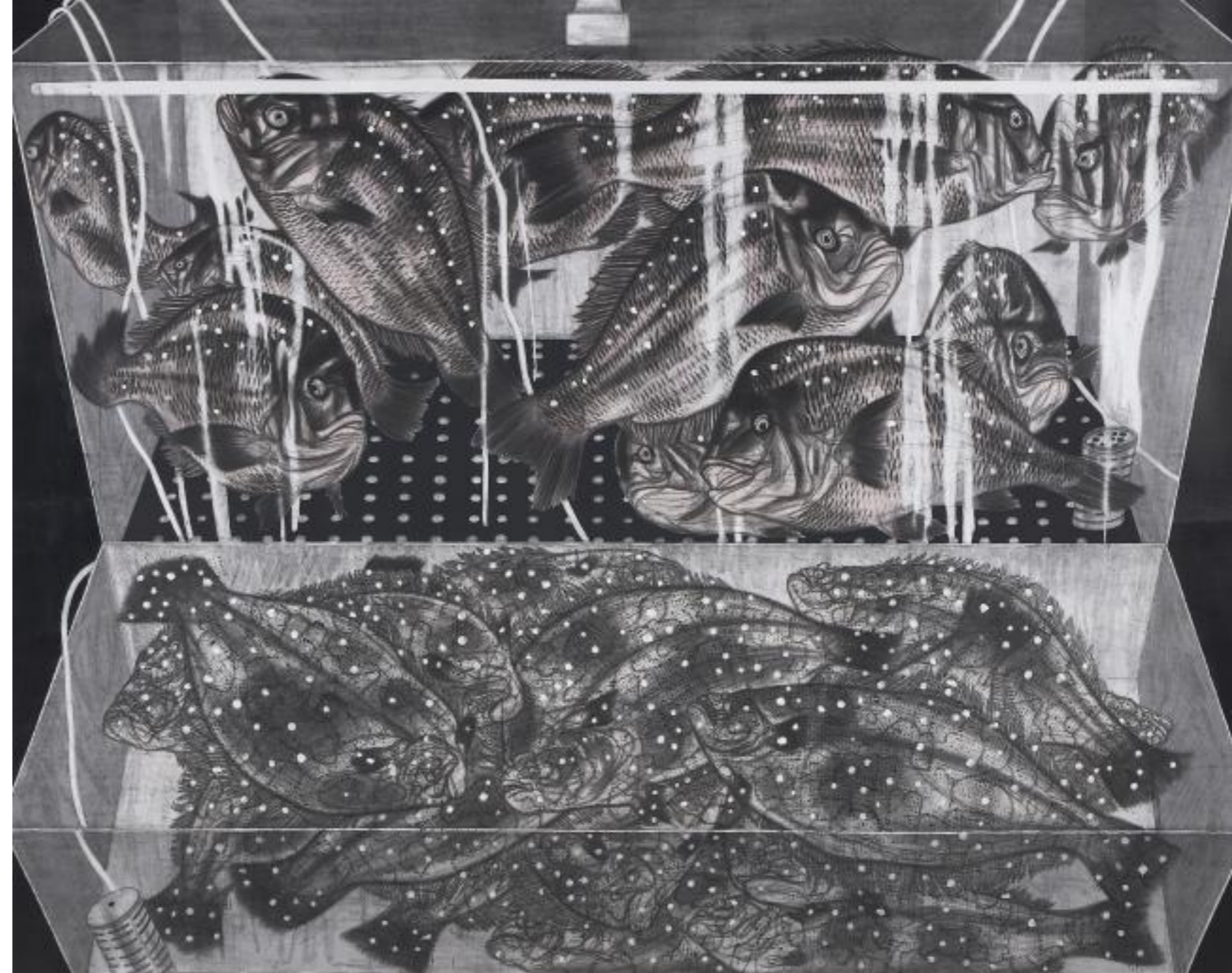
김정옥은 수족관 속 물고기의 모습에서 현대사회 속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스치고 미끄러지며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간 군상을 반추한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 공기처럼 부유하는, 형체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물고기들의 미끄러운 촉감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일종의 막연함과 비슷하다. 작가는 이 불안하고 막연한 사회 속에서 서로 온기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애뜻한 몸짓을 그려낸다. 작업의 주 재료인 장지의 포용성은 먹을 얇고 켜켜이 스며 번지게 하며, 이러한 주제 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미끄러운 문장들  
장지 위에 먹, 채색\_121x212cm\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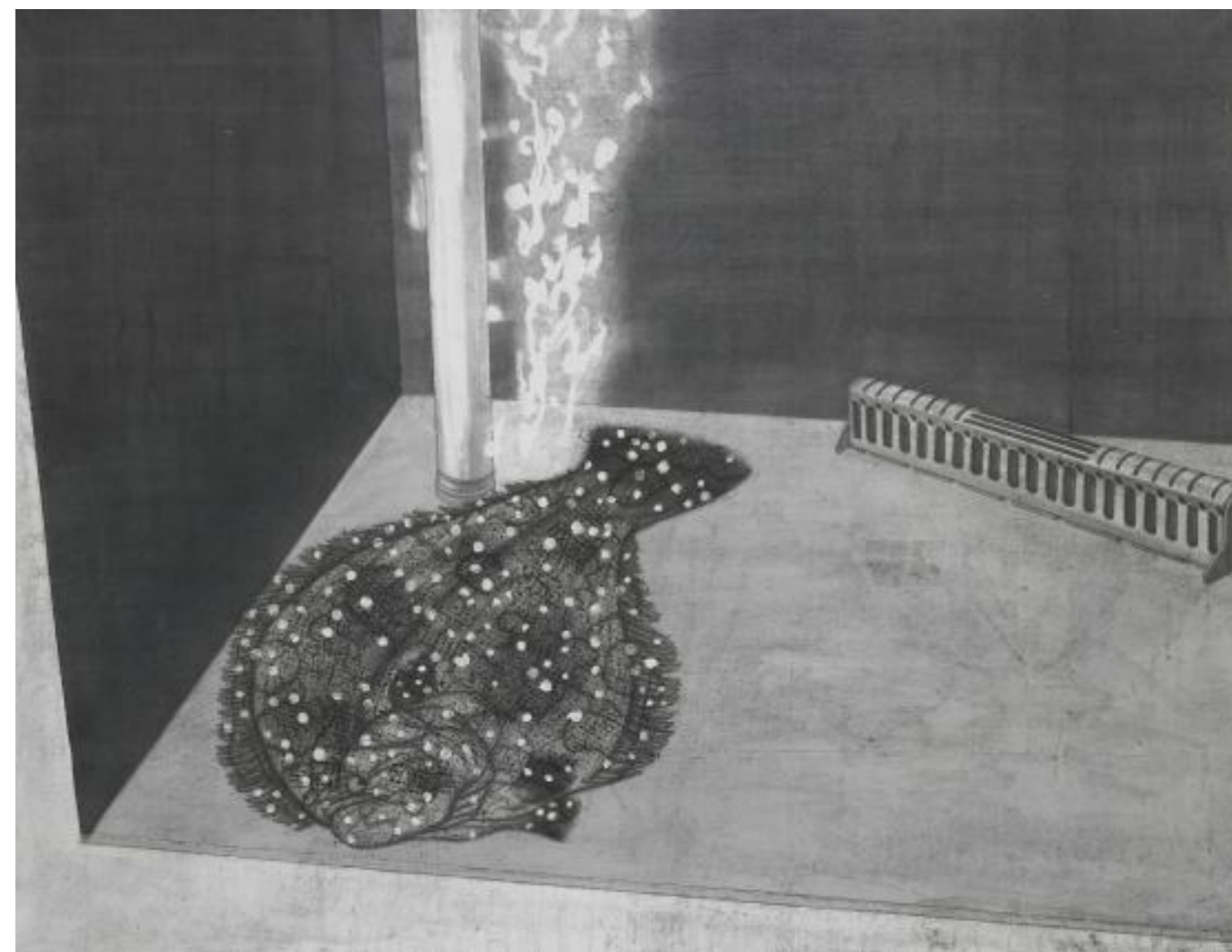
미끄러운 문장들  
장지 위에 먹\_106x152cm\_2023



미끄러운 문장들  
장지 위에 먹, 채색\_175x220cm\_2023



미끄러운 문장들  
장지 위에 먹\_108x141cm\_2023



미끄러운 문장들  
장지 위에 먹\_109x141cm\_2023

## 김정옥 KIM JUNGOK

김정옥의 수족관 속 물고기와 맞닿아서 현대사회의 속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스치고 미끄러지며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간 군상을 만주른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 물고기처럼 무위하는, 함께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물고기들의 미끄러움 속 깊은 무리가 삶에서 느끼는 일종의 막연함과 불안이다. 작가는 이 불안하고 막연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스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불안한 영혼을 그려낸다. 작업이 주제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맥을 갖고 케케이 스며 면치게 하며, 이러한 주제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정옥  
물고기들, 2019



김정옥  
물고기들, 2019



노은영은 본인을 비롯해 타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흡수해 다중의 삶을 이해하게 될 때 작업의 영감을 받고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작가만의 ‘균형잡기’ 방법을 탐구한다. 일상의 소소함부터 자연의 신비함까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을 작업으로 표현하며, 무의식적 욕망을 표출하는 기록으로서의 예술을 지속한다. 이러한 기록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사적 개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징후들과 구성원들의 감정, 사건에 대한 상황들과 모순 등을 자연물을 통한 은유로써 표현된다.



곳(鹿) 자리\_1  
Oil on canvas\_116.8x91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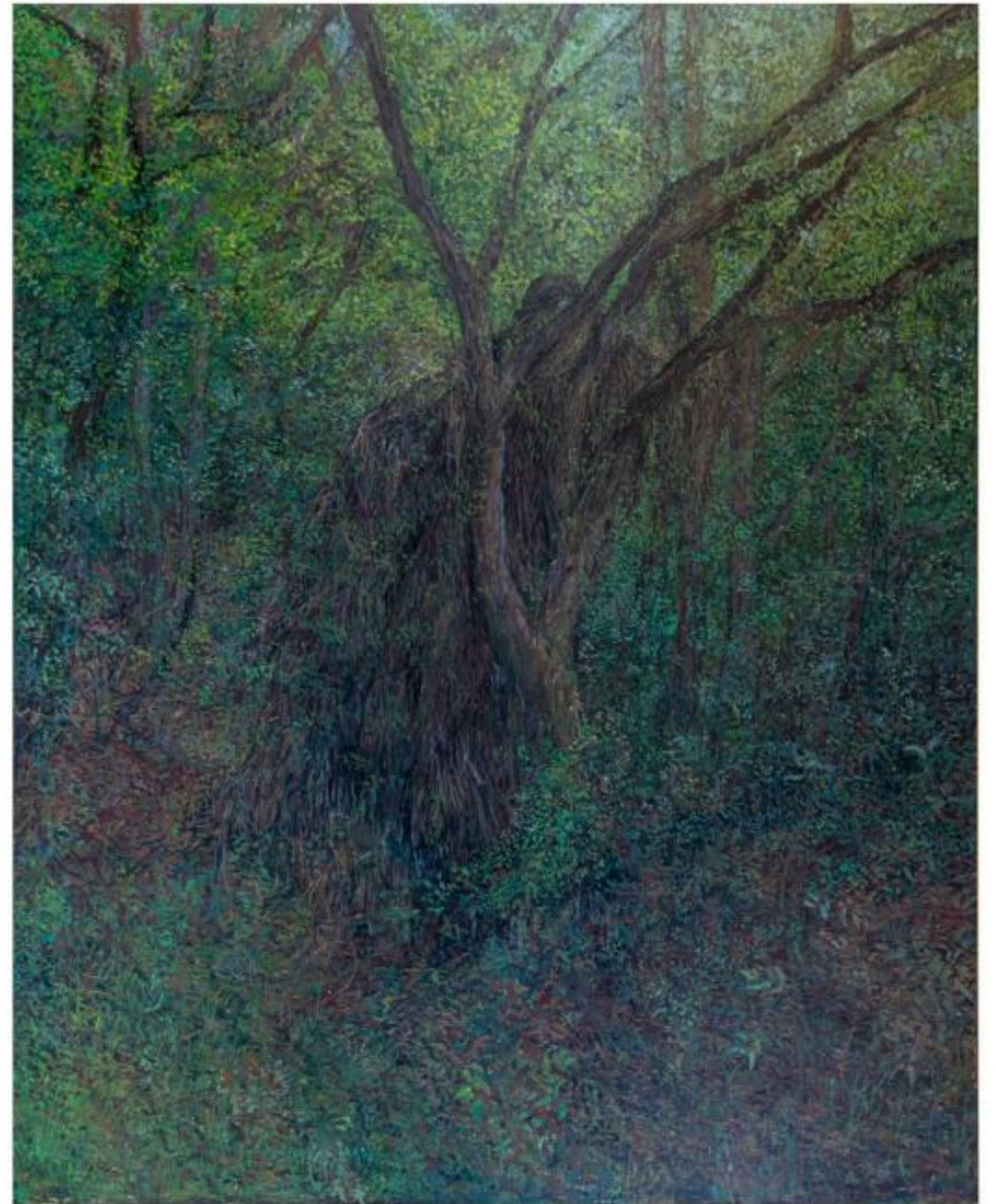
조작된 낙원\_당신이 있는 자리(화순 고인돌 공원)  
Oil on canvas\_181.7x227.3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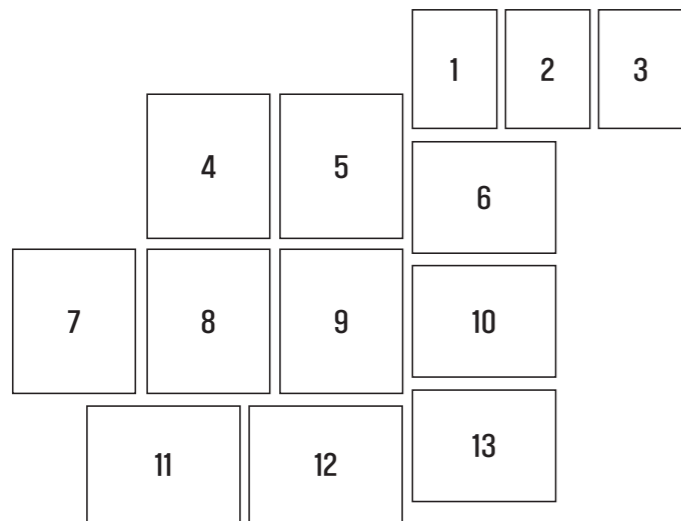
물의 길\_조작된 낙원  
Oil on canvas\_181.8x454.6cm\_2023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Oil on canvas\_181.8x227.3cm\_2023



스러지는 몸  
Oil on canvas\_227.3x181.8cm\_2023



1 쇠백로  
Oil on canvas\_25.8x16cm\_2023

2 곳\_5  
Oil on canvas\_22.7x15.8cm\_2023

3 직박구리  
Oil on canvas\_25.8x18cm\_2024

4 비둘기  
Oil on canvas\_27.3x22cm\_2024

5 물까치  
Oil on canvas\_27.3x22cm\_2024

6 관계\_흰뺨검둥오리  
Oil on canvas\_22x27.3cm\_2023

7 왜가리  
Oil on canvas\_27.3x22cm\_2024

8 원앙  
Oil on canvas\_27.3x22cm\_2024

9 죽음, 희망, 자유의 관계\_비둘기1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0 관계\_3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1 죽음, 희망, 자유의 관계\_동박새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2 찰나\_4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3 찰나\_3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4 죽음, 희망, 자유의 관계\_나방2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5 죽음, 희망, 자유의 관계\_나방1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6 곳\_7  
Oil on canvas\_27.3x22cm\_2023

17 죽음, 희망, 자유의 관계\_비둘기2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8 채집\_1  
Oil on canvas\_27.3x22cm\_2023

19 곳\_6  
Oil on canvas\_27.3x22cm\_2023

20 채집\_3  
Oil on canvas\_27.3x22cm\_2023

21 곳\_3  
Oil on canvas\_22x27.3cm\_2023



1. 노은영

### 노은영 NOH EUNYEONG

노은영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해 온다는 것, 직감에 충실한  
 바탕을 특징으로, 2010년 초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2010년 10월 10일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2010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개인 전시회와 관련된  
 사진과 함께 2010년 10월 10일 전시회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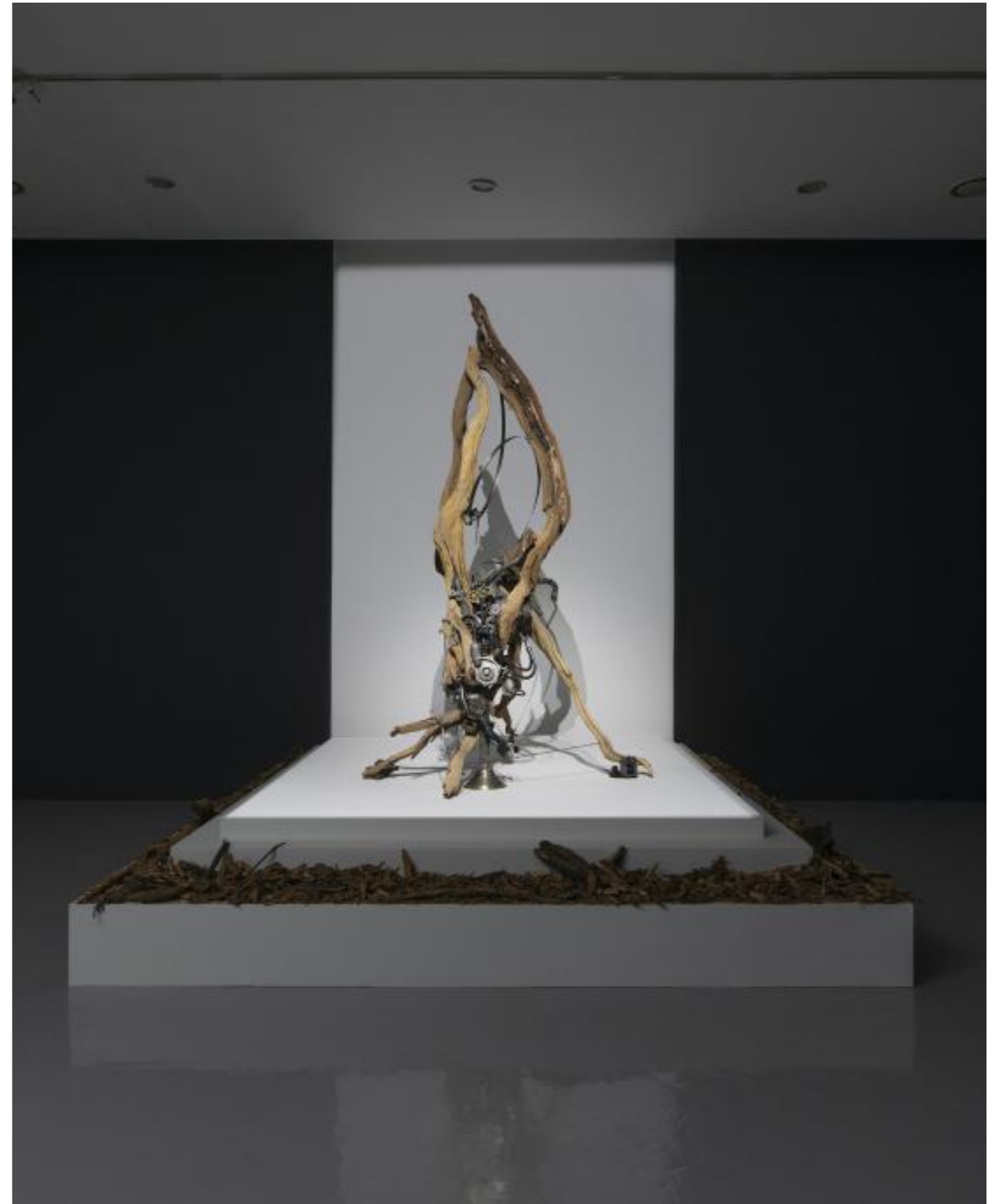
2. 노은영



3. 노은영

SHIN YEJIN

작가는 인간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연의 세계가 산업문명을 받아들이며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공생관계를 상상하고 이를 설치의 형태로 표현한다. 작가의 작업에서 관람자는 이제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개발이나 생존을 위한 적대적인 모습이 아닌, 서로의 문명을 치유하고 공생하는 일종의 무위적 전략을 감지할 수 있다. 동시에 작가는 '나무'라는 주체의 세계와 '기계'라는 객체의 세계가 서로를 보듬어 경계를 허문, 오롯이 공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세계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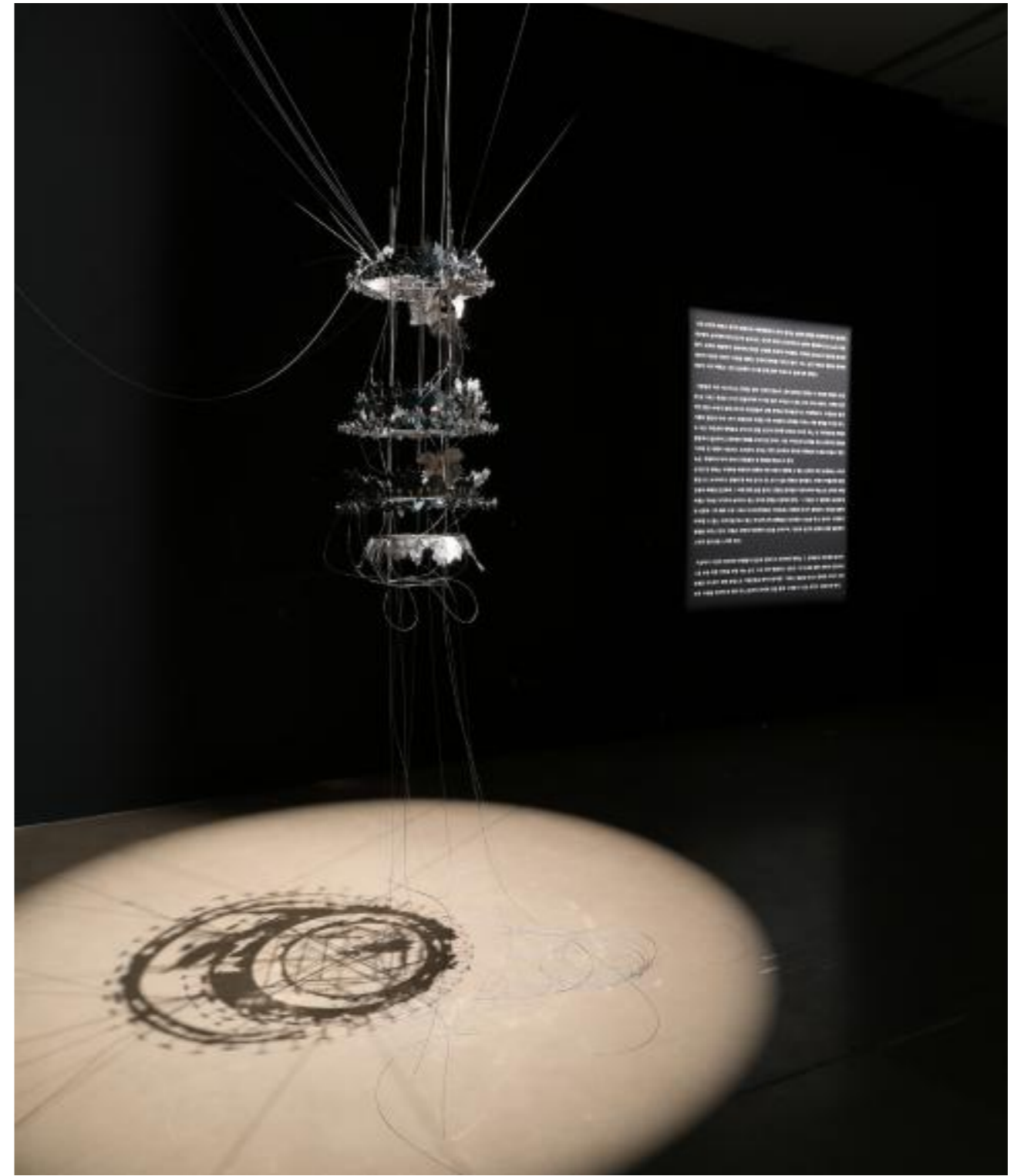
자연재생기구 - R.N(ver. Machine)  
훼손된 자연물 오브제, 기계부속장치, 스테인레스스틸, 스틸파이프, 스틸와이어,  
내연기관디젤 엔진 및 부속\_90x90x250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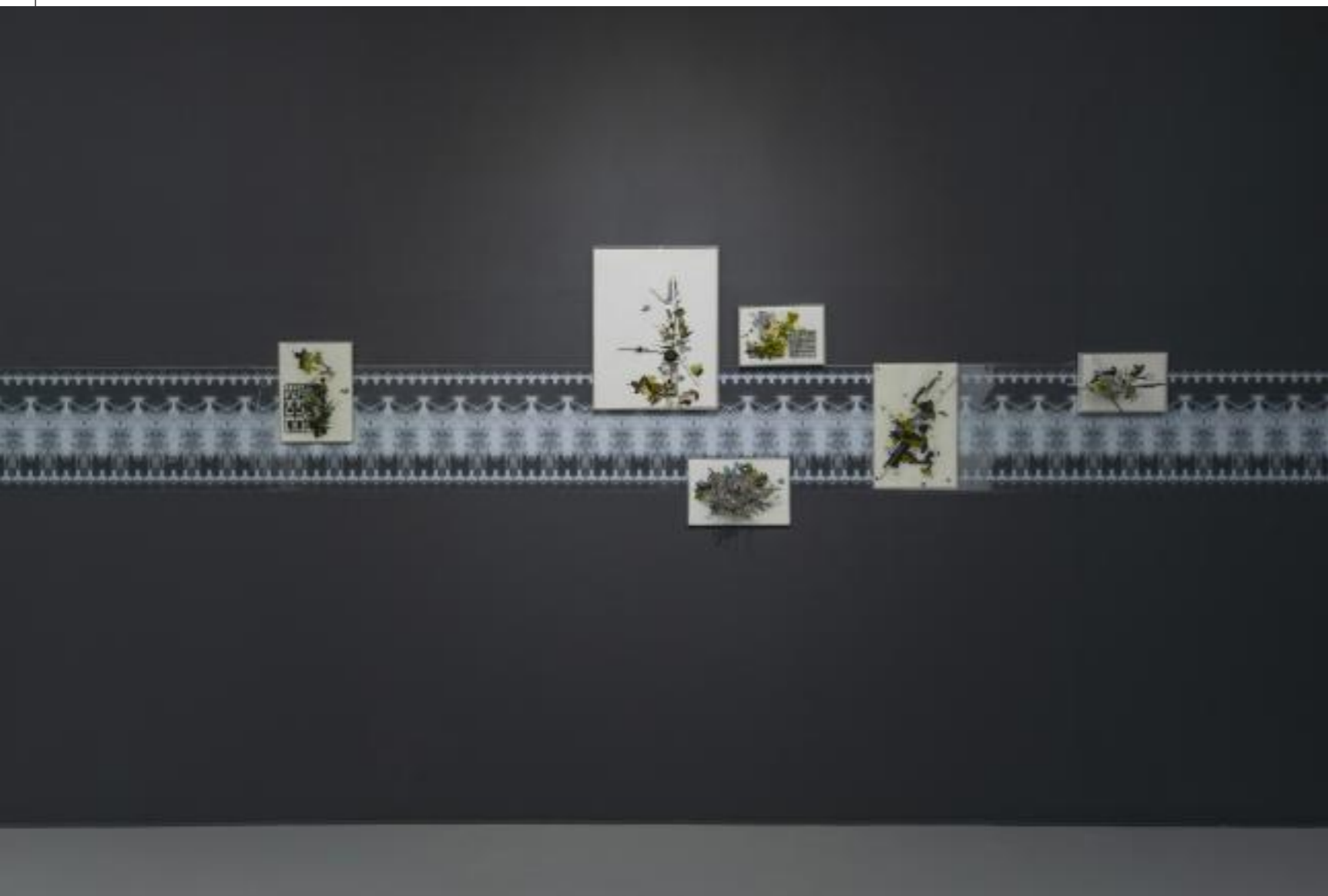
기계를 만든 어린나무  
 훼손된 자연물 오브제, 기계부속장치, 스테인레스스틸, 스틸파이프, 스틸와이어,  
 내연기관디젤 엔진 및 부속, LED\_가변설치\_2023



무너지지 않는 자세  
발포우레탄, 스텐, 크리스탈레진\_20x20x130cm(each)\_2023



산수를 향해하는 노(檣)  
스테인레스스틸, 스텐 전산볼트, 스텐프레임 LED\_80x80x230cm\_2023



R.N(ver. Machine)- G07s+bn0013cr  
 R.N(ver. Machine)- G019s+bn0023cr  
 R.N(ver. Machine)- G01ss+bn009cr  
 R.N(ver. Machine)- G01ss+bn003cr  
 R.N(ver. Machine)- G01ss+bn007cr  
 캔버스 위에 콜라주, 건프라키트, 스틸판, 스틸볼트&너트, 모형오브제,  
 크리스탈레진\_42x 54x5cm, 20x28x9cm, 22.5x34x19cm, 27.5x42x9cm,  
 25x34x10cm\_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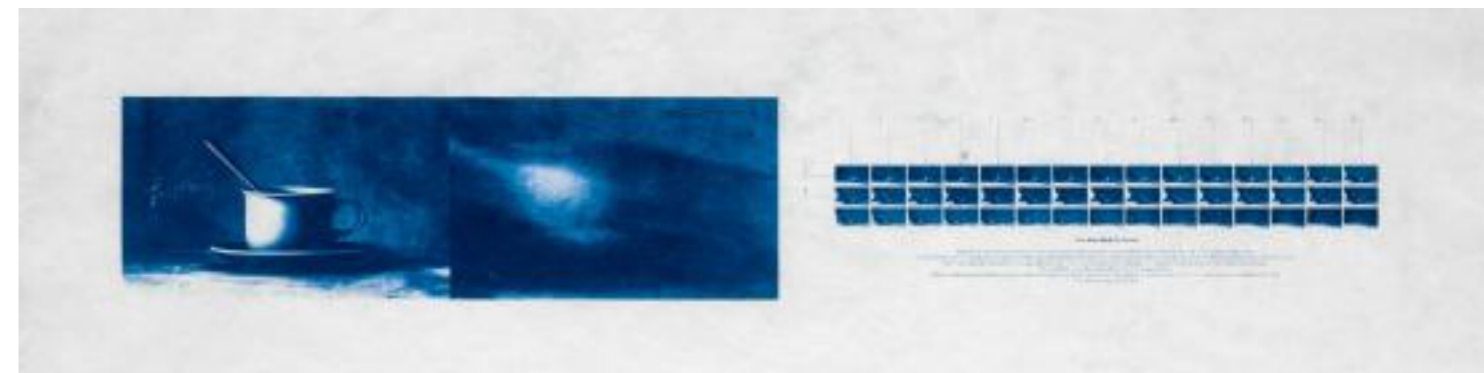


산을 올리는 방법  
 훼손된 자연물 오브제, 아크릴파이프, 발포우레탄, 크리스탈레진,  
 유리비즈\_80x80x130cm\_2022



ARTIST'S NAME  
DESCRIPTION OF THE WORK  
CHECKER

기억 회상의 반복적 행위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안중우의 작업은 감각된 기억과 물리적 기록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한다. 작가는 물리적 세계의 기록물(글, 사진, 영상 등)의 선형적이고 역사적인 나열을 끊어내고, 파편적이며 유기적인 재기록·구성을 통해 기록된 기억을 기반으로 한 비선형적이고 혼성적인 기억 회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작가는 19세기 초반 사진 기법인 검 프린트와 청사진을 주 매체로 활용하며, 동양화 재료인 장지, 분채, 아교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사진과 영상 기록의 발언을 풍부하게 확장한다.



기록역사III 잔을 움직이기  
순지에 청사진 후 시퀀스화\_20 x 80 x 8cm\_2024  
단체널 영상\_Variable size(video)\_2024



기록역사III 포개어진 잔과 그릇, 그리고 무명수건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125x360x4cm\_2024



기록역사III 두개의 잔과 스푼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0x120x4cm\_2024

기록역사III 잔과 그릇, 도자기병과 무명수건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0x120x4cm\_2024

기록역사III 잔과 그릇, 스푼, 도자기 병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0x120x4cm\_2024

기록역사III 포개어진 잔과 그릇, 도자기병, 무명수건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0x120x4cm\_2024

기록역사III 포개어진 잔과 그릇, 주전자, 도자기병과 무명수건  
단채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0x120x4cm\_2024



기록역사III 움직이는 잔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25x60x4cm\_2024

기록역사III 포개어진 잔과 그릇, 무명수건, 그리고 주전자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25x60x4cm\_2024



기록역사III 도자기 병과 잔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5x55x4cm\_2024

기록역사III 잔과 스푼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5x55x4cm\_2024

기록역사III 포개어진 잔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5x55x4cm\_2024

기록역사III 하인즈 소스와 도자기병

단체널 영상 촬영 후 순지에 청사진\_65x55x4cm\_2024



전시전경



전시전경



전시전경

주형준은 '소원'이라는 큰 범주의 욕망 서사를 그려내며 비조형적인 요소를 조형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들에 초점을 맞춘다. 신화나 영웅적 에피소드 속 주인공의 자리에 평범한 이들이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작가는 작품 속 대상의 머리 위에 성배를 그리거나 장엄한 빛의 형상을 부각하는 등 이들의 소원이 결코 사소해 보이지 않도록 힘을 쓰는데, 신성함이 부각되는 구도나 소재의 동세를 만들고 소원의 서사를 부여하며 상징적인 도상을 표현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성공의 봉화  
장지에 수묵\_130x162cm\_2023



사람이 된 별  
나무 위에 장지와 먹\_452x185x20cm\_2023



소원의 모양  
장지에 수목\_48x145cm\_2023



NEED, TRUST, CARE  
장지에 수묵\_91x72.5cm\_2023



쏟아지는 빛이여, 부디 사라지지 마오  
장지에 수묵\_32.5x22cm\_2023



1.1



1.2



1.3

**주형준 JOO HYEONGJOON**

주형준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1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2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다.





최은정  
CHOI EUNJEONG

섬세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자신만의 회화 영역을 탐구해 온 최은정은 자연과 문명의 공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식물을 모티프로 한 작업을 전개한다. 동시대 큰 화두로 언급되는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겪으며 다가올 미래 환경에 적응할 식물들의 세계를 기념비적인 정물 형태, 즉 '스틸 라이프(still life)' 방식으로 변환하여 재구성한다. 최근 기존 작업에서 보여진 건축과 자연물의 유기적인 추상 회화에서 특정 소재의 조형적 실험을 거듭하며 주제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Protea Speciosa  
Oil on canvas\_180x150cm\_2024



Still life with sunset and orchid  
Oil on canvas\_90.7x72.3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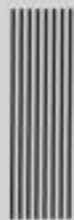
The Rising Suns  
Oil on canvas\_130x97cm\_2024



Morning dew and wild flowers  
Oil on untransformed panel\_55x43x6cm\_2024



Faith's Altar  
Oil on canvas\_90x220cm\_2024



### 최은정 CHOI EUNJEONG

심대한 범지구적 행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기후 영역을 탐구에 중점을 둔 자연과 문명의 공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작업을 전개한다. 동시에 온실로 인공되는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겪으며 다가올 미래 환경에 적합한 식물의 세계를 기념비적인 정물 형태, 즉 '스틸 라이프(Still life)' 방식으로 표현하여 재구성한다. 최근 기존 작업에서 보인 건축과 자연물의 유기적인 추상 회화에서 특정 소재의 조형적 실험을 거듭하며 추제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의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





### 최은정 CHOI EUNJEONG

심오한 철학의 탐구와 세련된 색채의 조화를 위한 열정을 탐구해 온 최은정은 자연과 문명의 공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식물을 유디피우 한 작업을 전개한다. 동시대 문명주의 언급되는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겪으며 다가올 미래 환경을 직면한 식물의 세계를 그려내려한 것을 통해 즉 '스탈그라이트(보통 유디피우)' 방식으로 환경의 파괴성한다. 최근 기후 변화에서 인간 관측과 자연물의 유디피우 중심 행태에서 특정 소재의 환경적 유효한 것들의 주제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다.



최혜연  
CHOI HYEYEON

산책 중 발견한 숲의 새로운 모습에 작가 개인의 경험을  
녹여내는 최혜연은 우리가 인지하는 영역 너머의 숲속 풍경을  
그린다. 작가는 야생의 동물적 감각과 우연성을 지닌 숲의 한  
지점을 포착해 어느 하나로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정체성의  
대상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거나, 장지 위에 생긴 우연적인 얼룩을  
구체화하며 무의식에 숨겨진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우연성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작가는 이분법의 규칙이 사라진 기묘하고도  
포용적인 우연의 숲으로 관람자를 이끈다.



우연의 숲6  
장지에 채색\_162.2x130.3cm\_2024



우연의 숲7  
장지에 채색\_162.2x260.6cm\_2024



우연의 숲3  
장지에 채색\_80x100cm\_2024



우연의 숲4  
장지에 채색\_162.2x260.6cm\_2024



우연의 숲8  
장지에 채색\_100x100cm\_2024



**최혜연 CHOI HYEYON**

산과 들, 강과 바다, 나무와 풀, 새와 짐승, 곤충과 벌레, 모든 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기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슬프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울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웃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죽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통해 영원히 살아간다.





작가



작가



작가

**최혜연 CHOI HYEYeon**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한소희  
HAN SOHEE

한소희는 자신이 경험한 공간의 기억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억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명확한 형체 없이 머릿속을 부유하는 기억의 편린을 한데 모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 시도는 기억이 가진 파편적이고 추상적인 고유의 속성을 거스르고 연결성을 만들어 기록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기억의 형태는 언제 어떤 이유로 경험했는지에 따라, 또 회상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달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기억은 생성된 그 순간부터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한다.



03766  
한지에 채색\_132x85cm\_2024



03766  
한지에 채색\_175x112cm\_2024



03766  
한지에 채색\_130x46cm\_2024



D03760  
한지에 채색\_112x135cm\_2024



03760  
한지에 채색\_32x100cm\_2024



작가명, 제목, 연도, 매체



작가명, 제목, 연도, 매체



작가명, 제목, 연도, 매체



작가명, 제목, 연도, 매체

### 한소희 HAN SOHEE

한소희는 자신이 경험한 공간의 기억을 재구성해 기억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명확한 형태 없이 때때로 무위하는 기억의 연반을 연대 모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는 기억이 가진 다면적이고 추상적인 고독성을 거스르고 연결성을 만들어 기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기억의 형태는 언제 어떤 이유로 경험했는지에 따라 대상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달리 만들어질 수 있는 작가의 필치법, 기억은 생성된 그 순간부터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한다.



**작가약력**



# 성필하 SEONG PILHA

**학력**  
 2016 청주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4 청주대학교 회화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0 《A Flow Not A Flow》, 대부도 주민센터 일대 (구)떡집, 안산/ 안산문화재단  
 2019 《오늘을 기억하는 공간\_각자의 빈틈》, 단원미술관, 안산/ 안산시  
 2017 《시선처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청주시립미술관\_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3 《물의 나라에서》,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춘천문화재단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展》,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Hoban-Emerging Artist Awards》, 아트스페이스호화, 서울/ 호반 문화재단  
 2022 《누구에게 그럴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청주시립미술관  
 2021 《창작의 시간 대부하우스》, 선감여촌마을, 안산/ 경기창작센터  
 《00MHz: 진동하는 경계들》,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 울산/ 경상일보  
 2020 《작가 노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문화재단\_경기창작센터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문화재단\_경기창작센터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문화재단\_경기창작센터  
 2018 《낮선 출발》, 공간시은, 전주/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_공간시은  
 2017 《낮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시립미술관\_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수상 및 선정**  
 2023 호반문화재단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선정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선정  
 2020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부분 선정  
 201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작가 선정

**레지던시**  
 2023-2024 예술소통공간곳, 춘천  
 2019-2021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안산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청주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 강승혜 KANG SEUNGHYE

**학력**  
 199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4 《Being with-함께 있다》, 갤러리 0°C, 서울  
 2023 《문득, 하얀 달》, 57th갤러리, 서울  
 2020 《小小한 Paradise》, 갤러리 일호, 서울  
 2018 《일상과 상상》, HcontemporaryGallery, 서울  
 《호두의 편안한 잠》, 갤러리 담, 서울  
 《Missing in the Garden》, 사이아트 도큐먼트, 서울  
 2004 《거실과 다락》, 갤러리 가이아, 서울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4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기억의 파도》, 대안공간 아트포럼1, 경기  
 2023 《세상을 바꾸는 예술가들의 성장통》, 강릉아트센터, 강원  
 2022 갤러리 아르떼슈기획 《우영우의 고래, 우리들의 고래》, 서울  
 2021 갤러리 문래 기획 《SmallBig》, 갤러리 문래, 서울  
 《The Healing Garden》, LEESEOUL GALLERY, 서울  
 2020 《행복한 꿈;BeatusSomnium》, Cafe artN, 서울  
 난설헌 국제교류 10주년 특별전 《The Wind》, 강릉아트센터, 강원  
 2020 신진작가공모 《꿈과 마주치다》, 갤러리 일호, 서울  
 2019 난설헌 작가초대전 《27송이 꽃을 피우다》, 강릉시립미술관, 강원  
 《ASYAAF 2019 Hidden Artist》, DDP 디자인둘레길, 서울  
 2012 《Loose Box3 (강승혜, 박계숙, 홍세연)》, 갤러리 현, 서울  
 2006 《Loose Box2 (강승혜, 박계숙, 홍세연)》, SraiGallery, 도쿄/일본  
 《Loose Box (강승혜, 박계숙, 홍세연)》,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5 《청년작가포트폴리오2005》,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관, 서울  
 《제1회 서울청년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  
 2004 《한국현대미술 파리전》, 갤러리 파리 가나 보부르, 파리  
 1998 《신진작가 발언전》, 경인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서울시청

# 김범준 KIM BEOMJUN

**학력**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졸업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판화 석사 졸업  
 2004 홍익대학교 판화 졸업

**주요 개인전**  
 2024 《새도우 그래프》, 인천 아트플랫폼 E1, 인천  
 2023 《잊어버린 기억, 그 빛》, 잇다 스페이스, 인천, 인천문화재단(창작지원)  
 2022 《The Burning bush》, 인천문화양조장 스페이스 빔, 인천, 인천문화재단(창작지원)  
 《HOLLYDAYS》, 갤러리 한옥, 서울, (사)한국미술사 연구소 지원  
 2020 《1 CORINTHIANS 13:12》, 예향 갤러리, 인천, 인천 예일고등학교 지원  
 《For corinthians》,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16 《Holidays》, 예향 갤러리, 인천, 인천 예일고등학교 지원  
 2013 《The quiet, silence, calm》, 아트스페이스 벤, 서울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4 김범준 윤종필 판화 2인전 《凹凸(요철)》, BODA 갤러리, 인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PRINT X 판화》, 진천군립 생겨판화미술관, 진천, 한국판화연구회  
 《S.P (state proof)》, 갤러리 벨라, 인천, 갤러리 벨라  
 2022 《제1회 이랜드 갤러리 헤이리 판화전》, 이랜드 갤러리 헤이리, 파주, 이랜드 문화재단 지원  
 《기억의 싹 2022》, 가온갤러리, 인천, 인현동 화재 추모 준비 위원회 주최  
 《3색전》, 예향 갤러리, 인천, 인천 예일고등학교 지원  
 2021 《우리마을에서...》, 우리미술관, 인천, 우리미술관 주관  
 2020 《판·화=판+화·판화의 과정과 실제》,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한국판화연구회 주최  
 2019 《네 개의 시간, 하나의 공간》, 인사아트센터, 서울  
 《편편한 판화》, 동덕 아트갤러리, 서울,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주최  
 2018 《시간의 리듬, 사물에 새긴 흔적》,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15 《Unity in Diversity》,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한국현대판화가 협회 주최  
 《The Third International Mezzotint Festival》, Ekaterinburg Museum of Fine Art, Ekaterinburg russia  
 2013 《인천 미술의 어제와 오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 재인 홍익 미대 동문회 주최  
 2005-2012 《인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인천예술고등학교 주최  
 2010 《제30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한국현대판화가 협회 주최

**수상 및 선정**  
 2024 갤러리 한옥 청년작가 공모전 우수상, 갤러리 한옥  
 2022 갤러리 한옥 청년작가 공모전 우수상, 갤러리 한옥  
 2015 제35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우수상, 한국현대판화가협회

2010 제30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입선,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2021 우리 미술관 커뮤니티 판화(어시스트), 인천문화재단 우리 미술관, 인천  
 2021 학산 문화원 커뮤니티 판화(어시스트), 학산문화원, 인천  
 2015 International Mezzotint Festival, Ekaterinburg Museum of Fine Art, Russia

**작품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 김정옥 KIM JUNGOK

## 학력

- 2015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회화 박사 졸업
- 2007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 석사 졸업
- 2002 중앙대학교 한국화 졸업

## 주요 개인전

- 2023 《미끄러운 문장들》, 필 갤러리
- 2022 《유리, 물, 일렁》, 동덕 아트 갤러리
- 2020 《물, 비늘, 껍질》, 복합 문화공간 예무
- 2019 《탕진수목2-풍경속의 풍경》, 인영갤러리
- 2015 《파브리카(FABRICA)》, 아트스페이스 에이치
- 2012 《Say hello...》, 안상철 미술관
- 2011 《Sprouting...》, 동덕 아트 갤러리
- 2008 《이상할 것도 없지...-기묘한 이야기-》, 게이트 갤러리
- 2006 《풍경의 답》, 관훈 갤러리

## 주요 단체 및 그룹전

- 2024 《메리아트 공모 전시회》, 인터스텔라 리조트 《청룡년》, 마리 갤러리
- 2023 《인사동 아트페어》, 안녕인사동 센트럴 뮤지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교보아트 스페이스
- 2021 《그레이트 인물전》, 대구 예술발전소
- 2019 《그리고 모두의 이름》, 예술공간 의식주
- 2018 《겹의 미학과 크리스퍼》, 복합문화공간 예무
- 2017 《겹의 미학》, 복합문화공간 예무
- 2016 《제3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 2015 《제17회 단원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안산 단원미술관
- 2013 《트라이 앵글》, 금천 아트캠프
- 2011 《사회학적 상상력》, 금천예술공장

## 수상 및 선정

- 2016 제3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 2015 제17회 단원미술대전 선정작가

## 레지던시

- 2011~2013 금천 아트캠프 입주
- 2010~2011 금천예술공장 2기 입주

# 노은영 NOH EUNYOUNG

## 학력

- 2017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수료
- 2014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 2022 《그렇게 흘러 지나간다》, G&J갤러리, 서울 《그렇게 흘러 지나간다》, 나주예술의전당, 나주
- 2021 《그 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갤러리라체
- 2020 《그 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산수미술관 《경계의 공간展》, 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
- 2018 《도시, 욕망의 공간 (공적인 도심의 사적인 공간)》, 광주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광주
- 2017 《도시, 욕망의 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

## 주요 단체 및 그룹전

- 202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AG신진작가대상 선정작가전》, 안국문화재단 AG갤러리, 서울
- 2023 《광주 청년작가전》, 광주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생태미술프로젝트 '생생생'》, 광주시립미술관 《제2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세계백화점 《풍경과 감정이입》,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 2022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세계백화점 《연결된 지점》,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 《일상 탐색전》, 전남대학교 박물관
- 2020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세계백화점 《또 다른 일상, 그림으로 기억하기》,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 《제7회 율타리-그 안에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 2020다므기展》, 조선대학교미술관 5.18 40주년 기념 《각자의 시선》, ACC문화창조원 복합문화3관, 광주
- 2019 《5월 평화의 꽃길》, 이강하미술관, 광주 《광주·전남 청년작가 교류기획전》,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5.18 40주년 기념을 위한 《각자의 시선》,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광주 《예술산책 -길에서 만난 예술, 담빛예술창고》, 담양 《한 집 한 그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 청년작가展 《한 여름밤의 열정》, BHC 갤러리 27번가 다므기展 《율타리-그 안에 어울림을 담다》, 광주 비엔날레

## 수상 및 선정

- 2024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선정작가 (장려상), 안국문화재단, 서울
- 2021 RICHE 갤러리 청년작가지원공모 선정

## 레지던시

- 2019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2021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미술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획한 환경미술제와 연계한 워크숍 (무등현대미술관)
- 2017 광주문화재단 문화메세나운동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 만세 만(萬)만(萬)계’

## 작품소장

- 광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 전남도립미술관, 영무예담, 안국약품

# 신예진 SHIN YEJIN

<b>학력</b>	2017	《POSCO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202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 박사 재학	《Emergent Property》, KIMI ART, 서울	
201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 석사 졸업	《AKUA ART SHOW NEWYORK》, MOKAH MUSEUM, NEWYORK	
2008	국립창원대학교 미술(조소) 졸업	《조형, 의미와 형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	
<b>주요 개인전</b>		《산수심원기》, 서호미술관, 남양주	
2024	《열 명의 나무 가운데 한 아이가 있어요.》, 봉산문화회관, 대구	《서울국제기획초대작품전-다문화 조형의 산책》, 예술의전당, 서울	
2023	《자연선택 ◦ ∴ ∥ // 라는 생물이 ◦ ⊙ → ∩ 하게 진화했다》, 박수근미술관, 양구	<b>아트페어</b>	
2022	《자연13BL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프로젝트 : Pre-Design》,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2024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4》, 코엑스, 서울
2021	《자연(自然)스러운 설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2023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3》, 코엑스, 서울
2013	《감축의 또 다른 시선》, 갤러리 이즈, 서울	《HotelArtshow Changwon 2023》,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호텔, 창원	
2012	《감각의 시간 - 감축으로 재구성한 사물》, 갤러리비원, 서울	2022	《HotelArtshow Changwon 2022》,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호텔, 창원
<b>주요 단체 및 그룹전</b>		2021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1》, 예술의전당, 서울
2023	《WIDE OPEN - Special Solo Exhibition》, 가나아플리에 JH CLUB, 양주	《WONJU ART FAIR - 뜻밖의 미술 발견》, 치악예술관, 원주	
	《Phuara of Essence》, SELECTED MALONG, 서울	2019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예술의전당, 서울
2022	《ARIST SHOWOOM》, 경남도민회집/도지사관사, 창원	2018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8》, 예술의전당, 서울
	《art gyeongnam 2022》,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호텔, 창원	《파트론비치아트페어》, 양양서피비치, 양양	
	《비결정론적인 비 주기의 흐름》, 지용아트갤러리, 서울	2017	《SPOON artshow》, 킨텍스, 고양
	파트론기획전 《자연의 심장박동》, 파트론디지털센터, 서울	2015	《BAMA2015(JARFO,MOTOgallery)》, 벅스코, 부산
	《산림단지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증식법》,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평택	2014	《W-ART SHOW2014》, 롯데호텔, 서울
2021	《네 개의 방 네 개의 질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b>프로젝트 및 프로그램</b>	
	《닷 닷 닷 -도시예술프로젝트》,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원주	2021	도시의 형(形) 위에 빛나는 상(Image),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학생동일대, 원주
	《감각의 정원》,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평택		감각의 정원,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평택
	《DMZ문화예술삼매경-Re:MAKER》, 강원문화재단/명파비치하우스, 고성	2015	DMZ문화예술삼매경-Re:MAKER, 명파비치하우스, 고성
	《Plat Flat - 평면 속 입체작품을 만나다》, 서정아트센터 x CGV(판교), 성남		한글문화큰잔치 '공감잇기, 한글, 예술이다', 광화문광장,서울
2020	《K-auction Preview》, 케이옥션아트타워, 서울	<b>작품소장</b>	
	《창원조각비엔날레-비 조각: 가법거나 유연하거나》, 창원성산아트홀, 창원	양구백자박물관, 웃다리문화촌 평택문화원,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거송종합건설(주), 성수동 대림창고, 어반어스(주), (주)다우케이아이디개발-청계아트리체 분양홍보관	
2019	《항구도시의 만남-동시이역》, 523콘스트독, 부산		
	《비 조각 프로그-가법거나 유연하거나》, 창원성산아트홀, 창원		
	《창원아시아미술제-상상피크닉》, 창원성산아트홀, 창원		
	《정·중·동-조용한 가운데 움직임》, 김해문화의전당/의정부예술의전당, 김해/의정부		
2018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서울		
	《김해서부문화센터개관기념전-언더그라운드展》, 김해서부문화센터, 김해		
	《INTERCITY-경계의무늬》, 김해문화의전당/안산단원미술관, 김해/안산		
	《GIAF-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 안종우 AHN JONGWOO

<b>학력</b>	202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수료
	2011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b>주요 개인전</b>		
2023	《12월 7일 오후 5시》, Label Gallery, 서울	
	《달 아래 꽃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East, 서울	
2022	《구보씨의 일일》, 시각미술연구소 필승사, 서울	
	《Attention》, 갤러리 What Artists Do, 서울	
2015	《감각의 릴레이》, 갤러리 KARAS, 서울	
	《야성의 부름》, 갤러리 Palais de Seoul, 서울	
2013	《우리가 원하는 것》, 갤러리 Palais de Seoul, 서울	
<b>주요 단체 및 그룹전</b>		
2024	《해부학》, 갤러리 Studiya, 서울	
	《물과 불, 안종우-필승 2인전》, 갤러리 Dorossy salon, 서울	
2023	《Imagine of Music》, BGN Gallery, 서울	
	《Random Rolling: Green Kisses White》, Alternate Archive RASA, 서울	
	《Aesthetica Art Prize》, York Art Gallery, 요크/영국	
2022	《Berlin Photo Week》, Arena Berlin, 베를린/독일	
	《중앙회화대전》, 한국미술관, 서울	
	《Searching all sources》, 서울대학교 삼원 S&D홀, 서울	
2018	《Hao》, 공간 행화탕, 서울	
2015	《Neo Pop》, 갤러리 Mei, 서울	
	《ASYAAF 2015》, 문화역서울(구 서울역), 서울	
2014	《On the ground》, 갤러리 Palais de Seoul, 서울	
	《Young artists》,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나주	
	《You've got a message》, 고양 아람누리갤러리, 고양	
<b>수상 및 선정</b>		
2024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안산문화재단, 대한민국	
	MA-g Award 선정작가, The Museum of Avant-Garde, 스위스	
2023	Aesthetica Art Prize 선정작가, Aesthetica Magazine, 영국	
2022	BBA Photography Prize, Berlin Photo Week 선정작가, BBA Gallery, BerlinPhotoWeek, 독일	
	중앙회화대전 입선, 중앙일보, 대한민국	
	Art Olympia 선정작가, 야마구치 문화재단, 일본	
2015	ASYAAF 2015 선정작가, 조선일보, 대한민국	
2013	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 갤러리 Palais de Seoul, 대한민국	

# 주형준 JOO HYEONGJOON

<b>학력</b>	20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수료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 졸업
	201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b>주요 개인전</b>		
2023	《흰 매가 머물던 자리》, 상업화랑 용산점,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0	《불확실한 재현》, 가창 창작 스튜디오, 대구문화재단, 대구	
	《완성연상》, 대안공간 쉬프트, 서울	
2019	《SAFEGUARD》, 신한갤러리, 신한은행, 서울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이랜드스페이스, 이랜드문화재단, 서울	
2018	《Shelter》, 설미재 미술관, 경기	
	《Shelter》, KSD 한국예탁결제원 갤러리, 서울	
<b>주요 단체 및 그룹전</b>		
2023	《Our Volume》, 상촌재, 종로문화재단, 서울	
2022	《광주화루》, 광주은행 본점, 광주	
	《합의형 수목》, 해움 미술관, 경기	
2020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 展》, 겸재 정선 미술관, 서울	
2019	《K-painting 2기 선정 展》, 운송갤러리, 서울	
2018	《Young and Young Art Project 4기 선정 展》, 영은미술관, 경기	
2017	《포트폴리오 박람회 입상 展》,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4	《공장미술제》, 대안공간 루프, 문화서울역284, 서울	
<b>수상 및 선정</b>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개인)> 선정, 서울문화재단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청년작가지원 선정, 종로문화재단	
2021	광주화루 10인의 작가 입상, 광주화루	
2020	겸재 내일의 작가 입상, 겸재정선 미술관	
2018	Young and Young Art Project 4기 선정, 영은미술관	
	신한 Young Artist Festa 선정, 신한 갤러리	
	이랜드문화재단 9기 전시지원 선정, 이랜드문화재단	
2017	포트폴리오 박람회 입상, 서울예술재단	
	KSD 예술상 신진작가 선정, KSD 한국예탁결제원 갤러리	

# 최은정 CHOI EUNJEONG

학력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수료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석사 졸업
2004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3	《Monument Valley》, 뉴 스프링 프로젝트, 서울
2022	《Implosional Space》, 클럽프 갤러리, 서울
2020	《Harmony Hall》, 카이스트 리서치 앤 아트 갤러리, 서울
2019	《Virtual Facade_ 수림미술상 수상작가 기념전》, (재)수림문화재단, 서울
2017	《Subtle Scape》, 갤러리 밈, 서울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3	《Precarious Geographies》, 갤러리 밈, 서울
2022	《PAGE ONE_ '수림문화재단 소장품'전》, 수림큐브, 서울 《파사주: 인공낙원 Passage: Artificial Paradise》, 서경아트센터, 서울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_ Post Analogue》, 오산시립미술관, 경기도
2021	《Beyond Landscape》, 롯데 에비뉴엘 갤러리 본점, 서울
2020	《나와 자연 사이의 거리》, 광주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9	《MIMESIS AP3: Picturesque City》, 미메시스아트 뮤지엄, 파주 《팬텀시티 PHANTOM CITY》, 세화미술관, 서울
2018	《Hyper Narrative》, Meta gallery (기획: Artplace), 모나코 《여성, 예술을 말하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 (주최: 달서문화재단), 대구 《낭만창전_浪漫窓前》,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6	《코리아 투모로우 2016_ 위풍당당 OUT+STANDING》, 성곡 미술관, 서울 《제5회 가송 예술상_ '여름 생색'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5	《소마 드로잉_무심 無心》, 소마미술관, 서울 《도시 수집가: Urban Gatherers》, 스페이스 K, 대구
2014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전》, 예술의 전당, 서울 《제4회 공장미술제_ 생산적인, 너무나 생산적인》, 문화역 서울284, 서울
2013	《프레 드로잉비엔날레_ 드로잉, 생각의 시작》, 화이트블럭 갤러리, 파주

수상 및 선정	
2019	SOMA Drawing Center 아카이브 작가 선정, 소마미술관, 서울
2018	수림미술상 대상 수상, (재)수림문화재단, 서울
2016	제5회 가송 예술상 대상, 동화약품/(재)가송재단, 서울
2014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서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2022	Meta Open Arts (Facebook Open Arts) Project, Meta office,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재)수림문화재단, 미메시스아트 뮤지엄,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주)동화약품, (주)신한화구 및 개인소장 다수

# 최혜연 CHOI HYEYEON

학력	
2019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2015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3	《흰 그림자들》, 고공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일렁이는품》,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경북 《일렁이는품》, 도올갤러리, 서울
2022	《말랑한풍경》, 서울정부청사갤러리, 서울
2021	《짜여진풍경》, 국립인천대학교 ART SPACE IN 갤러리, 인천
2019	《뜯어구석》, 도스갤러리, 서울
2018	《놓여진 것들》, 너트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4	《화랑미술제특별전 Zoom-in edition5》, Coex hall c&d, 서울 《시각의 바다》, 플레이스 막3, 서울 《21세기의 한국의 미술가들: 우수졸업작품전 2001-2004의 성과》,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Prospect24: 디휘테갤러리 신년 기획》, 디휘테 갤러리, 서울
2023	《아득한 기록된 메모에 언젠가》, 시안미술관, 경북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경북 《제4회 상반기 작가 공모전 FLY HIGH》, 충무로갤러리, 서울 《평평한 대화》, 예술공간 서로, 서울 《제8회 Art for Art 대상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22	《제7회 Art for Art 대상전》, 서리폴청년아트 갤러리, 서울 《서로 별의별 드로잉전》, 예술공간 서로, 서울
2016	《신바람 양평, 봄 프로젝트》, 양평군립미술관, 경기 《흐르는 땅,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강원 《샤먼 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교류전》, 샤먼 대학교, 중국
2015	《서울,경기 대학 우수졸업작품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미.탐: 대학우수졸업작품전》, 상암DMC갤러리, 서울

수상 및 선정	
2024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작가 선정, 충북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경기 제42회 화랑미술제 특별전 Zoom-in edition5, 10인의 작가 선정, 서울
2023	제8회 Art for Art 대상전, 특선, 서울
2022	제7회 Art for Art 대상전, 특선, 서울

레지던시	
2023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5기 입주작가, 경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2024	여성 시각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더우먼 프로그램 참여
2023	여성 시각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더우먼 프로그램 참여

**작품소장**  
한성중공업, 영천시, 개인소장 등

# 한소희 HAN SOHEE

학력	
2022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석사 재학 중
2022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주요 단체 및 그룹전	
2023	《느슨한 매듭》, 파비온드갤러리, 서울
2022	《Enchantees!》, Buronzu Gallery, Belgium 《ASYA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NO. 1st 7인의 기획전》, 노메이크업 스튜디오, 인천 《비전이화미술인전- 우수 졸업작품 전시 초대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섬》, 종로구 계동 제이한옥, 서울
2021	《삼다수》, 낙랑파라 망원, 서울 《EVER-CONNECTED》, 아라아트센터, 서울 《고립 혹은 탈피:섬》, 아트스페이스 백신, 서울 《ASYA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이 작품을 주목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8인의 생활인, 그들의 스펙트럼:흘러가는대로》, 공간서울 기획전시, 공간서울, 서울

아트페어	
2022	ARTSHOPPING PARIS, SALON INTERNATIONAL D'ART CONTEM- PORAIN, CARROUSEL DU LOUVRE, PARIS
2021	Affordable Art Fair, Metropolitan Pavilion, New York/USA

# 심사결과 및 위원명단



## 심사결과

총 11명 선정

구분	인원	수상자명	상금	
계	11인			
단원미술대상	1인	성필하	3,000만원 200만원	매입상 전시지원금
선정작가	10인	강승혜, 김범준 김정옥, 노은영 신예진, 안종우 주형준, 최은정 최혜연, 한소희	각 200만원	전시지원금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구자승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 운영위원

김영석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김춘옥 (사)한국화진흥회 이사장

노윤정 (주)쿤스트코드 대표이사

최예태 서양화가

두현은 안산시 문화관광과장

하진용 김홍도미술관장

## 심사위원회

### 1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이기영	월간미술 대표
	권희연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장
	김미란	전업작가, 창작스튜디오 리을 대표
	이건수	2023 수목비엔날레 총감독
심사위원	이종환	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제정자	전업작가
	홍경한	미술평론가
	Inho Kerry	Canada Sheridan College 교수

### 2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신종섭	한국미술협회 고문
	안영찬	한일현대ART교류회 회장
	이강화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
심사위원	이승호	예술의전당 서예, 전각 강사
	임철순	경기대학교 서양화과 명예교수
	조동균	前경기미술협회 회장
	허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 3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신현국	전업작가
	감윤조	미술평론가
심사위원	고윤정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기획실장
	박성희	여류화가회 이사
	임진호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 1차 심사평

2024년도 제25회 단원미술제에는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운 407명의 작가들이 지원하였습니다.

평론가, 작가, 교수, 미술감독, 미술잡지사 대표 등 8명의 심사위원이 7시간의 마라톤 심사로 24명을 1차로 선정 하였습니다.

여타의 공모와 다른 단원미술제만의 특성이라면 매체, 국적,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작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채널로 다년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다양한 작가들이 원대한 뜻을 품고 지원하고 있지 않나 예상합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특히 논리적인 작업 메세지를 가진 작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미술은 점점 단순히 시각적인 결과물의 영역이 아닌, 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주제, 이러한 주제를 글로 표현한 작가노트, 전시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탄탄한 논리를 갖춘 작가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공모 심사 이후 주최 측에 확인한 결과 해외 작가의 출품이 없었던 것이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공모전 자체의 문제가 아닌 한국 미술씬에 다른 국적의 창작자를 포용하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홍보의 다각화를 통해 더 많은 국적의 작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공모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하여 미술씬이 고민하는 문제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의 장인 공모전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출품한 모든 작가들에게 더 많은 행운과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 2차 심사평

제25회 단원미술제 2차 심사는 미술계 전문가 7명이 모여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가 24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작가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작업 설명을 진행한 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원미술제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시각예술 전 분야를 통합하여 공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면 뿐만 아니라 판화, 설치, 공예,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심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젊은 작가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작가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내거나, 파편화된 감정과 중첩된 무의식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거나, 주변의 자연물에서 우리 사회를 읽어내거나, 재료와 물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기성 작가들 못지않은 밀도 있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심사를 지속하며 앞으로 우리 미술계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 공모전은 작가들이 얼마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미숙할지언정 누구보다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며 본인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2차 심사에서는 작가만의 작업 세계와 가치관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가들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앞으로 단원미술제와 모든 작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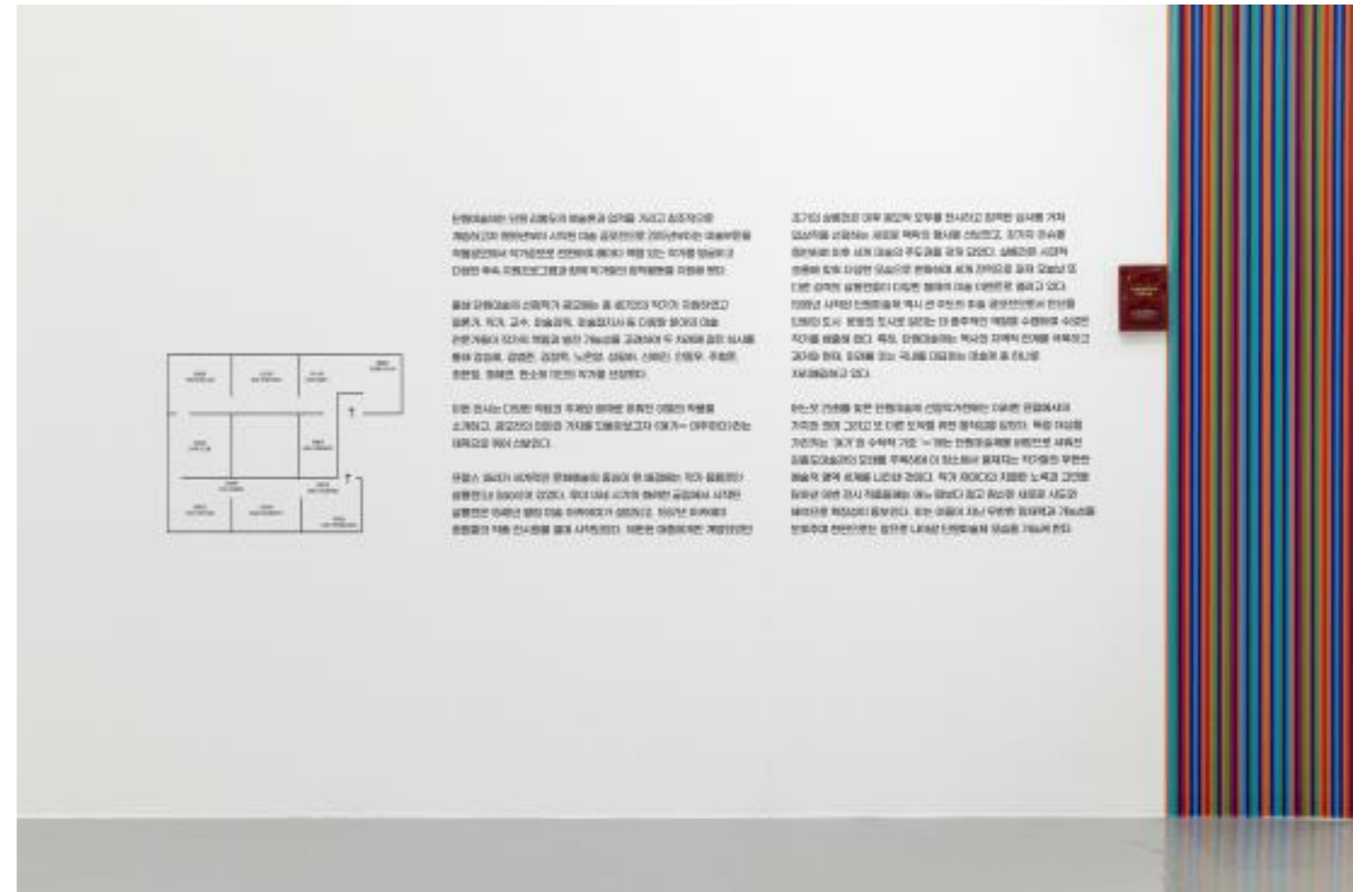
### 3차 심사평

제25회 단원미술제 3차 심사는 미술계의 전문가 다섯분의 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보 작가는 모두 11명이었고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분야의 작가들이었으며, 자연과 빛에 대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 표현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작가다운 참신한 조형 언어에 기초한 적극적인 작품소개와 어필로 장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작가 본인의 삶과 시각을 접목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크고 작은 작품들이 질서 있게 나열되었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숙고 끝에 작가들의 보다 미래지향적인 창작의욕과 표현영역의 확대·심화를 권장하는 면에서 성필하의 작품을 최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인간세계의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에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세계가 발현한 이미지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최종 11인 작가 모두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25회 단원미술제는 단원의 고매한 정신을 계승하고 그 후예들의 창작의욕을 고양시키는 최고의 미술제로 더욱 세계적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여기∞마주하다》

주최  
안산시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일  
2024. 10.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

발행인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이성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하진용 김홍도미술관장

공모사업  
원유준, 김장은, 김소현

전시기획  
배수진, 김소현

운영지원  
국예림

시설지원  
권선지, 박미애, 백서빈

도슨트  
황세숙

안내  
강성혜, 김경태, 김숙경, 이정란  
정진화, 조승희, 최경순

평론  
고충환 미술평론가

전시 디자인  
스물베리어티

공간공사  
(주)도시공영

연출물 시공  
(주)이엘아트

운송설치  
익스아트

전시사진  
사진, 담다

©안산문화재단, 2024

이 책에 수록된 작품도판 및 텍스트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저자 및 (재)안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홍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T. 031-481-0505 F. 031-413-5566  
W. danwon.ansanart.com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HERE, ENCOUNTER



HERE, ENCOUNTER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